

## 관계적 공격성 피해 여학생의 개인 및 가족 변인 연구\*

김 영 립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관련된 개인적·가족적 변인을 확인하고 변인들간의 작용 기제를 이해함으로써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적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개인적 변인으로는 특성분노와 성역할특성을 설정하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특성분노와 친화성, 주도성, 경직된 친화성, 경직된 주도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 815명(5학년 386명, 6학년 429명)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설정된 모든 변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은 경직된 친화성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여학생의 경직된 친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취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예방 및 개입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계적 공격성 피해, 여학생,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경직된 친화성

---

\* 본 연구는 김영립의 2017년도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9, E-mail: slee1@ewha.ac.kr

1990년대 중반 Crick과 Grotpeter는 여학생의 공격성 표현은 남학생의 공격성 표현과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학생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Crick, 1996; Crick & Grotpeter, 1995; Crick & Bigbee, 1998). 관계적 공격성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집단에 끼워주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또래관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손상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Crick, 1996, p. 2317)으로, 2자 관계 혹은 소규모 집단에서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여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Owens, Daly, & Slee, 2005).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Crick & Bigbee, 1998; Paquette & Underwood, 1999). 분명한 것은 여학생의 관계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관계적 공격성을 당하는 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즉,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경험한 여학생들은 피해를 경험한 남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며, 전반적인 자기 가치가 낮아지는 등 내면화 문제를 경험한다(Leff, Waasdorp, & Crick, 2010; Paquette & Underwood, 1999). 또한 관계적 공격성 피해는 특히 여학생에게 있어서 높은 수준의 신체적·관계적 공격 및 비행 등 외현화 문제와 관련된다(Grave, 2007). 따라서 여학생이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경험에 대해 조기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개입의 근거가 되는 관련 변인들과 변인들의 작용 기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

이 대두된다. 그러나 선행연구 가운데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피해에 대한 연구도 대부분 피해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특히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관련된 개인적·가족적 변인들의 역할 및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관계적 공격성 피해 여학생과 관련된 가족적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개인적 변인으로는 특성분노와 성역할특성을 설정하였다. 1980년대 이후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의 기원을 가정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애착이론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Bowers et al., 1992; Perry, Hodges & Egan, 2001). 안정적인 애착은 다수와의 또래유능성보다 소수 혹은 이자간 우정의 질과 더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Booth-Laforce, Rubin, Rose-Krasnor, & Burges, 2004), 애착이론만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또래관계 적응을 설명하는 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가족 관련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또래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대인관계맥락에서의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가족 관련 변인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또래지위와 부모 양육행동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었고, 이를 통해 또래로부터 수용받는 아동의 부모는 보다 아동중심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반응적이면서도 권위있는 통제방식을 취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드러났다(Mize & Pettit, 1997). 또래로부터 거부 당하는 아동의 부모(주로 어머니)는 침입적이고 가혹하며 독재적인 훈육과 사회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Dowell & Parke, 200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 방식은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또래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공격아동과 또래로부터 공격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 특히 Olweus(1993)는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남자아동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피해 남자아동의 어머니가 과잉보호적이며 자녀와 지나치게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후 Finnegan, Hodges와 Perry(1998), Rigby(1993)는 또래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과잉보호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율성과 주장성의 발달을 저해하여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높이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친화적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여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Olweus의 연구를 선두로 꾸준히 연구되어온 부모의 양육행동은 모두 외현적 공격성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된 부모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심리적 통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그 연구들도 관계적 공격성

가해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이하연, 2014; Kuppens, Laurent, Heyvaert, & Onghena, 2013), 피해와 관련된 부모 양육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진 바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또래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설정하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Finnegan 등(1998)의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과잉보호적 양육태도에 대해 겁내고 불안해하며 위축되는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하기 쉬운 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거부적·적대적 양육행동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할 위험이 커진다고 한다. 여자 아동이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성역할 기대와 불일치하며(Buntaine & Costenbader, 1997),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 위험을 증가시킨다(Hanish et al., 2004a). 또한,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감정 조절을 더 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도 감정 조절을 더 잘하기 때문에(Giesbrecht, Leadbeater, & MacDonald, 2011), 또래들은 여학생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데 대해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특히 이자관계 내지 소수의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강도 높은 친밀감과 일체감을 증시하는 여학생들 간의 또래관계(Leff et al., 2010; Owens et al., 2005)에서 이처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또래들로부터 배척당할 가능성을 높게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관계적 공격성 피해

여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이 아니라 피해학생이어서 공격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해를 당할 때 나타내는 반응적 공격성이 가해학생만큼 높고(Salmivalli & Nieminen, 2002), 이러한 반응적 공격성이 그들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Mathieson et al., 2011; Pronk & Zimmer-Gembeck, 2010). 한편, Park 등(2005)에 의하면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따라서 여학생이 학령기에 들어서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데는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인 기질적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요컨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 대해 분노로써 반응하던 여학생이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쉽게 강한 분노를 경험하고, 경험하는 분노의 조절이 어려워 공격적 태도로써 반응하면 또래괴롭힘 피해의 위험이 커지는데, 것처럼 쉽게 강한 분노를 경험하는 데는 기질적인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비교적 지속적인 개인의 분노기질 및 경향성, 즉, 특성분노에 초점을 맞추었다(Spielberger, 1988). 즉,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여학생의 특성분노가 더 많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 가정이다.

또래괴롭힘에 대한 종전의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또래괴롭힘 피해의 결과로서 정서의 내재화문제나 외현화 문제를 경험한다는 점에 초점이 두어져왔다. 이에 Hanish 등(2004a)은 불안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또래괴롭힘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서도 작용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고 분노만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한다는 점을 밝혔는데, 특히 여자 아동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하다고 하였다. 또한 Pronk와 Zimmer-Gembeck (2010)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학생의 특징중의 하나로 지나친 분노 표출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Buntaine과 Costenbader(1997)는 여학생의 경우에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분노를 경험하는 정도에 유의하게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고, Mathieson 등(2011)도 관계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분노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부터, 여학생들에게는 분노가 또래거부를 예측하는데, 특히 관계적 맥락과 관련된 분노가 여학생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상황에서 선천적인 분노 성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로와, 관계적 공격의 피해를 당함으로 인해 특성분노가 활성화되는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후 종단적으로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질적인 분노가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고 표출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즉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여학생의 선천적인 분노성향이 강화되고, 이렇게 강화된 분노성향이 또래관계에서 표출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 특성분노가 매개적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물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자녀의 특성분노간의 관계는 양방향적일 수 있다. 거부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해 자녀의 분노성향이 굳어졌을 수도 있지만, 아동의 분노성향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가 가장 처음 접하는 관계 대상으로서 자녀의 사회 정서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사회화 주체(Goleman, 1995)라는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특성분노를 강화하는 관계를 설정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대인간 상호작용에 있어 부정적인 모델이 될 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자녀의 일반적 분노성향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성역할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nenbaum & Leaper, 2002).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여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요구되는 공감, 배려, 협조하기, 다른 사람을 돌보기 등 유대와 친교를 형성하는 능력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또래괴롭힘 피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Eisenberg & Fabes, 1998; Finnegan et al., 1998). 이 때, 사람들과의 유대와 친교를 형성하고 이를 중시하는 심리적 특성, 즉, '친화성(communion)'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이 기대되는 성역할특성이다(Bakan, 1966; 김성희, 2009에서 재인용).

반면, 독립성, 자기 확신, 결단성 등 '주도성(agency)'은 주로 남성에게 기대되는 성역할특성이다(Bakan, 1966). 이러한 성역할특성의 발달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또래집단 내에서 리더쉽과 주장성을 발휘하는 등 주도성 발달이 사회적 유능감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친밀한 소규모 또래관계 내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수립하는 등 친화성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Fuhrman & Holmbeck, 1995). 따라서 자신의 성에 기대되는 성역할특성의 발달이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사회적 기대에 위배되는 반대성의 성역할특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때에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가능성은 커진다(Kreiger, 2008).

한편, 여학생의 경우 최근에는 '알과걸'(Kindlon, 2006)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도성과 친화성, 독립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성유형(gender streotype)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도 여학생에게서 경직된 주도성이 발달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성에 요구되는 성역할특성의 발달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또래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또래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Navarro, Larrañaga, & Yubero, 2011). 또한 자신이 속한 성의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또래 수용에 중요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소속감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Kornienko, Santos, Martin, & Granger, 2016).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우에 친화성이 과업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친화성이 높은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즉 상호적 지지를 통해서 과업상의 목표를 순탄하게 달성한다고 한다(Hankonen, Konttinen, & Absetz, 2013). 이러한 점들로 미루

어, 성역할특성은 여전히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반대 성의 성역할특성으로 완화되지 않고 경직되거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역할특성을 '경직된 주도성(unmitigated agency)'과 '경직된 친화성(unmitigated communion)'이라고 한다. 이들은 단순히 주도성이나 친화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독립된 차원의 특성으로 간주된다(Spence, Helmreich, & Holahan, 1979). 먼저, 경직된 주도성은 친화성이 결여되어 친화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채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타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적대적이고 냉소적이며 탐욕스럽고 거만한 성격 특성으로 나타난다. 여학생에게서 거만하거나 주제넘게 나서고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등의 경직된 주도성이 발달하면 또래괴롭힘 피해의 위험은 크게 증가한다(Kreiger, 2008).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는데(Goleman, 1995; Rohner, 1986), 이러한 공격적 태도의 기저에는 적대적이고 지배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대결적인 상호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는 경직된 주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Ghead & Gallo,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친화성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직된 주도성의 발달을 조장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의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경직된 친화성은 주도성이 결여되어 주도성에 의해 완화되지 않은 채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친화성으로, 자기 자신을 배제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어,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중시하고 자기 자신의 욕구는 아예 무시하게 되는 심리적 특성을 가리킨다. 주도성의 발달이 요구되는 남학생의 경우 경직된 친화성이 발달하여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또래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커진다(Kreiger, 2008).

그러나 경직된 친화성의 발달은 여학생의 또래적응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소속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Kiesner, Cadinu, Poulin, & Bucci, 2002), 이러한 여학생들이 사회적 거부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배제 경험으로 인해 집단에 다시 소속되기 위하여 과도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직된 방식의 친화성을 나타냄으로써 오히려 또래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받거나 괴롭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박혜정, 홍상황, 2014; Purdie & Downey, 2000). 또한 친화성이 주도성으로 완화되지 못하고 주도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복종적인 위치에 있고, 무력하며, 거부당할 만한 존재라고 지각하게 되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Roberts, Hart, Coroiu, & Heimberg,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경직된 친화성 발달을 조장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 위험을 높일 것으로도 예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도성의 매개적 역할도 확인하려고 한다. 주도성은 남학생들의 성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성역할특성이기는 하지만, 여학생에게 있어서도 자기 의견을 적절히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한 태

도를 취하는 데 요구되는 심리적 특성이기도 하다. 이처럼 친화성 뿐 아니라 주도성도 잘 갖춘 양성적 여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더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최운진, 임현정, 2010), 또래들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Kreiger, 2008). 이러한 주도성은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환경에서 발달하기는 어려우며,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육환경에서 발달이 가능하다(Rigby, 1993). 따라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여학생의 주도성 발달을 저해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특성 네 변인 모두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특성분노는 특히 경직된 주도성이나 경직된 친화성과 같은 부정적 성역할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직된 주도성이 강한 사람은 적대적·지배적 행동으로 인한 대인 관계적 문제들을 나타내며, 신체적·언어적으로 공격적이고, 분노를 행동화하는 경향이 크며(Ghaed & Gallo, 2006), 적대감·분노는 경직된 주도성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Helgeson & Fritz, 1999). 이처럼 분노와 경직된 주도성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 변인 간에 어느 변인이 선행하는 변인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이론적 근거는 부족하다. 분노와 경직된 친화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을 희생하면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경직된 친화성이 강한 것

이 일반적 분노 경향성을 억제하는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분노를 잘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경직된 친화성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과적 방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성분노와 경직된 주도성 및 경직된 친화성간의 경로는 설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간의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나, 그러한 연관성을 설명하는 과정이나 경로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 변인과 개인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노경선, 심희옥, 2004; 서미정, 김경연, 2004; 이경님, 2009; 정선진, 2006). 또한 연관성을 매개하는 변인을 설정한 연구라 하더라도, 또래괴롭힘을 측정할 때 외현적 또래괴롭힘만을 측정하거나 혹은 외현적·관계적 등 여러 형태의 또래괴롭힘들의 점수를 합쳐서 단일 변인으로 뭉뚱그려 다룸으로써, 설정된 매개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또래괴롭힘을 더 잘 설명하는지 알기 어려웠다(권연희, 2013; 김귀연, 김경연, 2005; 도현심, 2000; 유리향, 2012; 조유진, 2011). 또한 성역할특성이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에서는 성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김성희, 2009)가 있을 뿐,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를 성역할특성이라는 변인과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또한 아동의 분노와 또래괴롭힘 피해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특성분노와 같은 분노의 경험 차원보다는 분노의 표현 차원에 중점을 두거나, 분노의 경험 차원과 표현 차원을 구분하지 않고 측정함으로써, 여자아동의 분노에는 기질

적 요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Park et al., 2005)는 해외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김귀랑, 2005; 박지영, 201; 한영경, 2008).

이제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특성분노와 더불어 성역할특성 네 변수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 부분매개 모형을 설정하고(그림 1 참조),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학생의 또래집단 적응을 저해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어머니-딸간의 관계는 어머니-아들간의 관계보다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Isley et al., 1999; LaFreniere & Sroufe, 1985; Suess, Grossmann & Sroufe, 1992)는 측면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딸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경로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학습이론 및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적대감을 느끼고 거부를 경험한 여학생은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행동을 학습하여 또래관계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대감을 예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도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게 되어 자신도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된다(Michiels, Grietens, Onghena, & Kuppens, 2008). 이러한 학습은 어머니와 딸이라는 동성간의 동일시 과정에 의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Casas et al., 2006). 또한

MacBrayer, Milich와 Hundley(2003)는 어머니-딸간의 관계의 특성이 여학생의 또래관계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사회정보처리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들은 모호한 상황에 대한 귀인 편향(다른 사람의 행동을 얼마나 적대적인 것으로 귀인하나?)과 반응행동의 의도(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응하나?)에 있어서 어머니와 여학생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나 나타났으나, 어머니와 남학생간에는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적대적 귀인을 하는 모델이 될 뿐 아니라 딸에게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특성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을 매개로 하여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뿐 아니라,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직접적으로도 예측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소재 14개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875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6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815부의 설문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중 5학년 386명(47.4%), 6학년 429명(52.6%)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1.36( $SD=.63$ )세였다.

측정도구

사회적 경험 척도

Crick과 Grotpeter(1996)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경험 질문지(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SEQ)를 이지원(1999)이 번역한 척도 가운데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측정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좀더 폭넓게 측정하기 위해서, Storch와 Masia-Warner(2004)가 이러한 목적으로 SEQ에 추가한 관계적 공격성 피해 문항 4문항 가운데, 우리 사회의 관습적 의사표현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1문항('How often does another kid role their eyes or snub nose at you?')을 제외한 3문항을 추가로 포함시켜 총 8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SEQ에서 피해의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는 방식(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별로 그렇지 않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꽤 그렇다, 5점: 항상 그렇다)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 유무를 구분하

기에 모호하므로, 좀 더 명확하게 피해자를 범주화할 수 있도록 Solberg와 Olweus(2003)의 연구에서 제안되었던 응답 방식(1점: 전혀 없었음, 2점: 1~번 정도, 3점: 한 달에 2~3번, 4점: 일주일에 1번 정도, 5점: 일주일에 여러 번)으로 척도값을 변환하였다.

이와 같이 수정된 척도가 단일한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검증값이 147.064 ( $df=20, p < .001$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chi^2$ 검증은 표본의 크기,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수, 상관계수의 크기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으므로(김수영, 2016), 다른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하였다(TLI=.906, CFI=.933, SRMR=.045, RMSEA=.088 [90% CI: .075 ~.102]). CFI, TLI의 경우 .90 이상이면 양호한(fair) 적합도라 하고(Hu & Bentler, 1999), RMSEA의 경우 .05에서 .08 사이가 양호하다고 하였으며(Brown & Cudeck, 1993), SRMR도 .10보다 작을 때 양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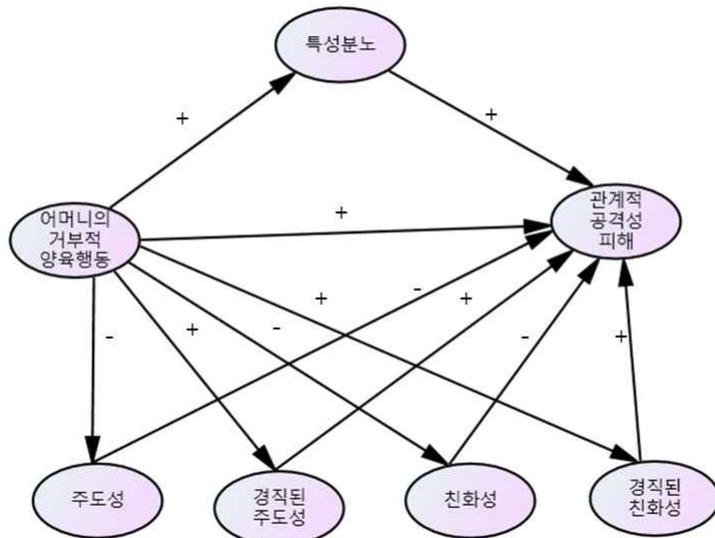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으므로(Kline, 2010), 본 연구의 사회적 경험 척도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적 경험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 피해경험을 당하는 빈도가 높음을 뜻한다(예: '놀이나 특별활동을 할 때 친구가 나를 일부러 따돌렸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대해 나쁜 얘기를 해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3이었다.

####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척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박영애(1995)의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 척도를 김문정(2003)이 수정·보완한 척도 가운데 거부·제재 행동 하위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거부적·제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각함을 뜻한다(예: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화를 내신다', '나에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신다'). 초등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김문정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 특성분노 척도

초등학생의 분노를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1988, 전경구, 1996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경구(1996)가 번안하고, 김백영(1997)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한 척도 중 특성분노 하위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쉽게 분노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할 뿐 아니라,

사소한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에도 강하게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함을 나타낸다(예: '나는 쉽게 화가 나는 사람이다', '내가 잘한 일에 대해 나쁜 평가를 받으면 불같이 화가 난다').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윤혜경(2006)의 연구에서 특성분노의 Cronbach's  $\alpha$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성역할특성 척도

성인의 성역할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Spence 등(1979)이 개발했던 확장형 개인 특성 질문지(Extended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EPAQ)를 Kreiger(2008)가 아동의 성역할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번안하고 타당화한 성관련 성격 특성 표현(Expression of Gender-related Personality Traits: EGPT)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EGPT는 주도성, 친화성, 경직된 주도성 각 5문항, 경직된 친화성 6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리커트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성역할특성이 많이 발달해 있음을 의미한다(주도성의 예: '할 일을 스스로 잘 챙겨서 한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 친화성의 예: '나는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 하면 신경이 쓰인다'; 경직된 주도성의 예: '친구들의 단점을 지적한다', '아이들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경직된 친화성의 예: '다른 아이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킨다', '아이들이 나를 귀찮게 해도 화를 내거나 그만하라고 하기 어렵다).

Kreiger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역할특성을 교사가 평정하는 방식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 자신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술문을 변경하였다.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 2인의 이중 역번역 과정을 거친 뒤, 예비연구를 통해 다시 보다 정확한 의미가 되도록 문항 수정을 하였다. 또한 예비연구에서 내적 합치도가 낮게 나온 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EGPT의 원칙도인 EPAQ에서 문항들을 더 발췌하여 문항수를 늘려보라는 Kreiger의 이메일 조언에 따라 EPAQ에서 2문항을 발췌하여 추가, 총 23문항이 되었다. 그러나 23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수용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저자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평정하던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아동 자신이 평정함에 따라, 일부 부정적 내용의 문항들에 있어서 성역할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4문항을 제거하였다.

총 19문항으로 다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  검증값이 688.262( $df=146$ ,  $p < .001$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chi^2$ 검증의 경우 표본크기에 민감해서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영가설을 과도하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여러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Browne & Cudeck, 1993, 김수영, 2016). 이에 다른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하였다(TLI=.843, CFI=.866, SRMR=.068 RMSEA =.068[90% CI: .063~.073]). CFI, TLI는 .90 이하로 나타나 빈약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RMSEA의 경우 .05에서 .08 사이로 나타나고, SRMR도 .10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성역할특성 척도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확인된 성역할특성 척도 4개 하위척도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주도성(3문항) .71, 경직된

주도성(5문항) .73, 친화성(5문항) .77, 경직된 친화성(6문항) .78이었다.

#### 자료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성역할특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기 위해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1요인분석 문항묶음(single-factor analysis parceling) 방식에 근거하여 개별 문항의 요인 부하량 크기에 따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묶음으로써, 각 문항의 특성이 상쇄된 새로운 측정변수를 형성하였다(김수영, 2016). 이에 따라 모든 잠재변수에 대해 각각 세 개의 측정변수가 형성되었다. 주도성의 경우에는 문항이 3개라서 각 개별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매개변수가 두 개 이상인 다중매개모형의 경우에 Amos가 제공하는 부스트래핑 기법에서는 개별 간접효과 각각에 대한 값을 보고하지 않고 이들의 총합인 전체 간접효과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개별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Mplus 7.0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부스트래핑 기법을 사용하였다. 10000번의 부스트래핑 표집을 통해 추정치와 신뢰구간을 확보하였다.

## 결 과

잠재변수간의 상관

먼저,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특성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척도들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점 ~ 4점, 관계적 공격성 피해 척도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점 ~ 5점임을 감안할 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 참여 여학생들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및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정적 관계에 있는 변수들상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부적 관련이 있는 변수들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을 확인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 $r=.23, p < .01$ ), 특성분노( $r=.37, p < .01$ ), 경직된 주도성( $r=.15, p < .01$ ), 경직된 친화성( $r=.29, p < .01$ )과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도성( $r=-.15, p < .01$ ), 친화성( $r=-.12, p < .01$ )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관계들은 이론

표 1. 연구모형 잠재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815)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1.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1.33	.48	2.35	6.30
2. 특성분노	1.68	.56	1.20	1.39
3. 주도성	3.01	.64	-.37	-.41
4. 경직된 주도성	1.83	.56	.79	.55
5. 친화성	3.04	.59	-.34	-.33
6. 경직된 친화성	1.88	.63	.71	.13
7. 관계적 공격성 피해	1.31	.40	.13	6.36

표 2. 연구모형 잠재변수들간의 상관계수 (n=815)

	1	2	3	4	5	6	7
1.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1						
2. 특성분노	.37**	1					
3. 주도성	-.15**	-.10**	1				
4. 경직된 주도성	.15**	.46**	.16**	1			
5. 친화성	-.12**	-.15**	.47**	.07*	1		
6. 경직된 친화성	.29**	.43**	-.08*	.23**	.02	1	
7. 관계적 공격성 피해	.23**	.29**	-.05	.20**	-.04	.40**	1

\*\*  $p < .01$ , \*  $p < .05$

적 배경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위해 첨도와 왜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고,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아(Kline, 2010), 단변량 수준에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검증

구조 모형 검증을 하기에 앞서,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모형화(two-step modeling)에 따라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들이 각각의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 검증값은 413.348(df=168,  $p < .001$ )로 영가설이 기각되었지만,  $\chi^2$ 검증의 경우 표본이 커질수록  $\chi^2$ 의 값이 커지므로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동일한 모형이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 모형의 기각 여부가 결정되므로 모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에 다른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들을 확인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TLI=.961, CFI=.968 SRMR=.043 RMSEA =.042[90% CI: .037~.048]),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잠재변수간 상관과 요인부하량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요인부하량을 통해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면, 각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59~.90의 범위로 나타나고 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수렴타당도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Kline, 2010)에 근거할 때 '주도 1' 등 몇 요인부하량이 .70에 못 미치는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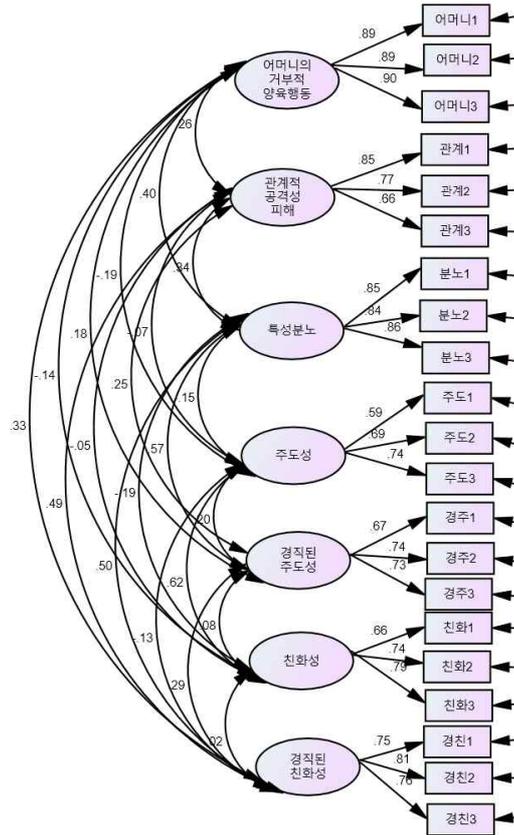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간 상관 및 요인부하량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만, .50을 넘으면 경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볼 때(Nunnally & Bernstein, 1994), 본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잠재변수간 상관을 통해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를 살펴보면, 잠재변수간 상관이 .02~.62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변별타당도를 확인하는 잠재변수간 상관값의 상한선으로 Kline(2010)이 제안한 .90보다 작은 값으로, 본 측정모형의 변별타당도도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특성분노, 주도성, 경직된 주도성, 친화성, 경직된 친화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변수들에 대한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 참여 여학생 815명을 대상으로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과정에서 SRMR 지수가 .10이 넘게 나타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친화성 설명오차와 주도성 설명오차간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친화성과 주도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공통된 개념적 배경을 지닌다는 점(Kreiger, 2008)에 의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증 결과,  $\chi^2$ 검증값은 773.061( $df=177, p <$

.001)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통계적으로는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밖의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LI=.909, CFI=.923, SRMR=.098, RMSEA=.064[90% CI: .060~.069]). 이에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대체로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그림 3과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매개변수로 설정된 모든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특성분노( $\beta=.42$ ) 및 경직된 주도성( $\beta=.20$ ), 경직된 친화성( $\beta=.35$ )과 같은 부정적 성역할특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도성( $\beta=-.19$ )과 친화성( $\b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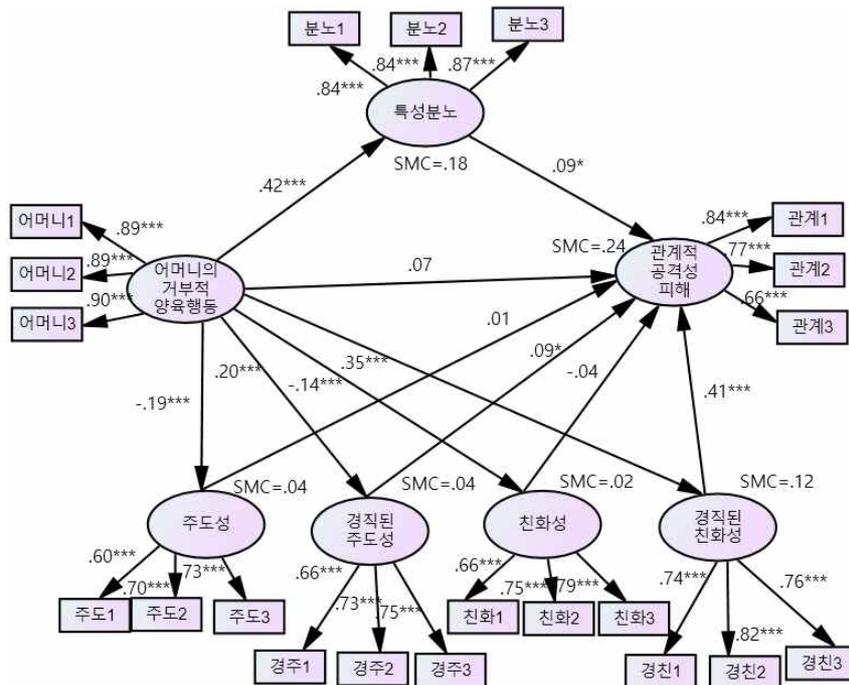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요인부하량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815)

	비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특성분노	.56***	.05	.42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주도성	-.21***	.05	-.19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경직된 주도성	.29***	.06	.20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친화성	-.16***	.05	-.14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경직된 친화성	.42***	.05	.35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관계적 공격성 피해	.06	.04	.07
특성분노→관계적 공격성 피해	.06*	.03	.09
주도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00	.05	.01
경직된 주도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06*	.03	.09
친화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03	.05	-.04
경직된 친화성→관계적 공격성 피해	.32***	.04	.41

\*  $p < .05$  \*\*\*  $p < .001$

=.14) 같은 긍정적 성역할특성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분노( $\beta = .09$ )는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직된 주도성( $\beta = .09$ )이나 경직된 친화성( $\beta = .41$ )과 같이 부정적인 성역할특성도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성( $\beta = .01$ )이나 친화성( $\beta = -.04$ )과 같은 긍정적인 성역할특성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 제시하는 매개효과 검증에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가는 전체효과( $\beta = .253$ )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의 간접효과에 의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가는 직접효과가 억제된 것으

로 보인다.

#### 매개효과 검증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특성분노, 주도성, 경직된 주도성, 친화성, 경직된 친화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때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190$ ). 이를 특정 매개 경로별로 살펴보면, 모든 경로 가운데 경직된 친화성이 매개하는 경로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32$ ). 기존 연구에서 여학생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경직된 주도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17$ ).

표 4.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n=815)

개별 매개효과			비표준화 (B)	표준오차	표준화 (β)	95% 신뢰구간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특성분노	→ 관계적공격성피해	.036	.023	.039	-.010 ~.082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주도성	→ 관계적공격성피해	-.001	.011	-.001	-.022 ~.020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경직된주도성	→ 관계적공격성피해	.017	.011	.019	-.005 ~.040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친화성	→ 관계적공격성피해	.005	.009	.005	-.012 ~.022
어머니의거부적양육행동	→ 경직된친화성	→ 관계적공격성피해	.132***	.026	.143	.081 ~.183
전체 매개효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	→	관계적 공격성피해	.190***	.036	.206	.119 ~.260

\*\*\* 신뢰구간 99.9%에서 영가설 기각(Bootstrapping)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여학생의 또래 간 공격성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에게 많은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관계적 공격성 피해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특성분노와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관계에 대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실시한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은 여학생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당할 증가된 가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특성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과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인 것이 여학생의 특성분노가 활성화되고, 경직된 주도성과 경직된 친화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주도성 및 친화성의 약화와 연합되었다.

한편 친화성과 주도성간의 상관이 .47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의 척도에 반응할 때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반응의 내용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특성분노와 경직된 친화성간에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 $r=.43$ )이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욕구, 감정을 억제하는 자기침묵(self-silencing; Jack, 1991)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직된 친화성이 높은 여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하며, 이러한 반복적 억압이 역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부당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결국 더 쉽게 분노를 느끼게 할 것이다(Jack, 2001).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설정된 모든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특성분노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분노성향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왔다(Muris, Meesters, Morren, & Moorman, 2004).

자녀의 특성분노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을 초래하는 방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양육자이자 아동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첫 번째 대상이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상호작용하는 대상이다. 만일 어머니가 수용적·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분노 성향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아동의 특성분노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특히 어머니에 대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Isley 등(1999)은 부모의 부정적 정서 표현은 긍정적 정서 표현보다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이러한 양상이 특히 동성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Moretti, Catchpole와 Odgers(2005)는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있어서 공격성이나 폭력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더 강력한 보호요인이 되는데, 특히 어머니의 온정성이 긍정적 적응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부모 교육 등 어머니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네 가지의 성역할특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여학생의 경직된 주도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거부적 태도를 취하면 자녀로 하여금 부정적 자아개념, 적개심,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는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하며(Rohner, 1986), 자녀는 이러한 부정적 자아개념을 보상하거나, 타인에 대한 전반적 적대감과 부정적 세계관을 투영하면서 극히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발달시키게 된다. 이는 바로 경직된 주도성이 발달한 사람의 주요한 특성에 해당한다(Helgeson & Fritz, 1999).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경직된 친화성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여자아동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이 가치 없고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을 심어준다(Finnegan et al., 1998).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지닌 채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태도가 경직된 친화성의 핵심이며, 이는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Helgeson, Swanson, Ra, Randall, & Zhao, 2015). 또한 경직된 친화성은 거부민감성이나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맥락에서 고려할 때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거부경험이 많은 아동일수록 거부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관계를 매우 회피하거나

혹은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데 집착하면서 지나치게 수동적·복종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Downey, Lebolt, Rincón, & Freitas, 1998). 거부민감성은 사회적 위축과 억제를 매개로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박혜정, 홍상황, 2014)할 뿐 아니라, 사회적 재연결(social reconnection, Maner, DeWalt, Baumeister, & Schaller, 2007)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면서 과도하게 친화적인 행동 특성, 즉 경직된 친화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에 경직된 친화성은 자기 성에 벗어난 성역할 특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경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더 강한 소속에 대한 욕구(Kiesner et al., 2002)가 좌절될 위협에 처하여 과도하게 노력하는 맥락에서 경직된 친화성이 나타남으로써, 지나치게 위축되고 복종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Roberts et al., 2011) 관계적 공격성의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친화성·주도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거부적·적대적 양육행동이 친화적 유능성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선행연구(Eisenberg & Fabes, 1998)를 뒷받침한다. 거부적·적대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친밀하고 온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공감, 친사회적 행동 등 친화성 발달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Finnegan et al., 1998). 친화성과 같이 성에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여학생은 또래적응에 어려

움을 나타낸다고 하며(Espelage, Mebane, & Swearer, 2004; Zarbatany, Conley, & Pepper, 2004), 각 성의 전형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최근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Kornienko et al., 2016).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주도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등 반대 성의 성역할특성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여학생의 또래관계 형성에 긴요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적응에도 필수적인 주도성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혜진, 2011; Kreiger, 2008). 실제로 주도성은 부모가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면서도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 권위 있는 양육방식을 사용할 때 발달한다고 알려져 있다(Baumrind, 1991).

모형에 포함된 매개변수 가운데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나타낸 변수는 특성분노, 경직된 주도성, 경직된 친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특성분노가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Crick과 Bigbee(1998)는 관계적 공격성 피해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 가해 여학생, 외현적 공격성 가해-피해 여학생보다 더 높은 분노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Pronk와 Zimmer-Gembeck(2010)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관계적 공격성 피해 학생은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성격적 특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에서 특성분노로 가는 직접 경로는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성분노에서 관계적 공격성 피해로 가는 경로도

이처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성분노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모형에서 성역할특성 네 변수들을 모두 삭제했을 때 특성분노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의 매개효과가 성역할특성 하위변수들에 의해 억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성역할특성뿐 아니라 특성분노를 통해서도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성분노와 같은 기질적 특성보다는 성역할특성과 같이 사회적 상황을 통해 표출되는 심리적 특성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직된 주도성이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경직된 주도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적대적·지배적·이기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Helgeson & Fritz, 1999) 소규모 또래관계 내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중시하는 여학생들의 또래관계 적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Hanish 등(2004b)은 여학생들이 공감을 잘 못하거나 지나치게 주장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경직된 주도성이 발달한 것은 여학생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성의 또래집단에서 거부되거나 또래괴롭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성(gender)과 관련된 행동들이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지 알아본 Kreiger(2008)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에 경직된 주도성은 관계적 또래괴롭힘 피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경직된 주도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경직된 친화성은 특성분노 및 성역할특성 네 변수 가운데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가장 큰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변수는 경직된 친화성뿐이었다. 즉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경직된 친화성을 발달시킴으로써 관계적 공격성 피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설명할 때 경직된 친화성의 영향이 경직된 주도성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선행연구와는 매우 차별화된 발견으로,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적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 사회 등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각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전통(Sue & Sue, 1999)이 우세한 우리 문화에서는 집단의 소속과 유대 형성에 필요한 친화성의 발달이 사회적 적응에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개인주의문화가 발달한 미국 사회에서 남성적 성역할특성인 주도성으로 구분되는 독립성, 주장성 등의 특성이 집단의 문화가 발달한 일본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특성이 아니라고 하며(Sugihara & Katsurada, 2002), 마찬가지로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중국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역할특성으로 알려진 온화함, 다정함 등 친화성으로 구분되는 특성이 남성들에게 더욱 중요한 특성이라고 한다(Yu & Xie,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친화성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경직된 친화성의 발달이 경직된 주도성 발달보다 사회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경직된 친화성의 영향력이 부각된 것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예측변수로 설정된 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어머니가 거부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또래가 거부, 무시하거나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는 등 관계적 공격성을 당하는 상황과 유사한 맥락이다(Maner et al., 2007). 이러한 사회적 거부의 맥락에서 인정과 수용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생겨나고 경직된 친화성의 발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을 높임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동적·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복종적·순종적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고(Purdie & Downey, 2000), 이는 또래 간 힘의 불균형에 기여하며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특히 취약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남성적 성역할특성은 자기신뢰와 연결되어 있어서, 특히 사춘기에는 이러한 남성적 성역할 특성이 부족할 경우 자존감이 크게 낮아진다고 한다(Helwig & Ruprecht, 2017). 이에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은 자기신뢰의 부족과 자존감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친화성의 매개효과가 다른 변수들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평균 관계적 공격성 피해 점수가 1.31로(1점: 전혀 없었음, 2점: 한 달에 1~2번), 전체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또래괴롭힘의 정의에는 못 미치는 상태로, 이처럼 경미한 피해 상황에서는 사회적 재연결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Maner et al., 2007) 여학생들이 또래집단에 수용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직된 친화성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먼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딸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밝혔다.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Finnegan et al., 1998; Rigby, 1993)에서는 외현적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여학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라고 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 피해뿐 아니라 관계적 공격성 피해와도 관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성 부모인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딸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Isley et al., 1999), 딸이 어머니의 적대감에 아들보다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던 연구(Grave, 2007)를 고려했을 때, 어머니와 딸 간의 상호작용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동성 부모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어머니로 하여금 스스로의 양육행동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경직된 친화성이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관계적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밝힌 데 큰 의미를 지닌다. 성역할 기대에 위배된 행동적 특징들이 또래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며(Fabe, Martin, & Hanish, 2003), 경직된 주도성이 특히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중요함을 밝혔던 기존 연구(Kreiger, 2008)들과는 달리, 오히려 여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용한 친화성이 극단적으로 변질되어 나타날 경우 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도성의 측

면에도 주의를 기울여, 친화성이 주도성과 균형을 이루지 않고 경직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피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자기 의견 전달하기, 요청하기와 거절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 훈련을 통해 주도성을 발달시키고, 이로써 경직된 친화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친화성 이면에 내재해 있는 거부에 대한 민감성, 인정과 수용에 대한 과도한 욕구 등과 관련된 역기능적인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서 수정하는 인지 치료적 접근 방식의 개입이 유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성역할특성 척도가 선행연구에서는 교사가 평정하던 방식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생 자신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성역할특성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대로 교사 혹은 부모 등 제 3자가 평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역할특성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가운데 증분적합도지수인 TLI와 CFI가 .9에 미달하여 빈약(poor)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수정지수를 참고하여 측정오차간 공분산을 세 개 설정한다면(친화4와 친화5, 경친3과 경친4, 경친4와 경친5), CFI가 .9 이상으로 개선되는 점으로 미루어, 친화성과 경직된 친화성 하위 척도에서 지표변수가 측정하는 또다른 잠재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특성에 대한 개념적 근거에 따라 성역할특성 척도를 네 가지 하위척도를 통해 측

정했으나, 다음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성역할특성의 하위 유형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성역할특성 하위유형을 새롭게 구분해봄으로써, 측정모형에서 주도성 2문항, 경직된 주도성 1문항, 친화성 1문항의 요인부하량이 .70에 미달하여 수렴타당도를 저하시켰던 문제를 개선시키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분노표현에는 기질적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특성분노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나, 더 직접적으로 분노표출을 변인으로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모두 분노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변인 선택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음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피해에도 함께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성역할특성 변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연희 (2013).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215-238.
- 김귀량 (2005) 아동의 분노표현과 또래폭력 경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귀연, 김경연 (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문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백영 (1997). 분노통제 프로그램이 부적응아동의 분노와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희 (2009). 성역할특성으로서의 주도성, 친화성, 경직된 주도성, 경직된 친화성과 심리적 적응.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노경선, 심희옥 (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 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 도현심 (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영 (2010). 남녀 중학생의 스트레스, 분노, 대처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정, 홍상환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또래괴롭힘 피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초등교육*, 25(3), 1-18.
- 서미정, 김경연 (2004).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 오혜진 (2011).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여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리향 (2012). 어머니 양육행동과 초등학생의 괴롭힘간 관계: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매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경 (2006). 초등학생의 신체증상 경험과 부정적 정서, 대처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남 (2009).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부모변인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7), 1-12.
- 이지원 (1999).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로부터의 공격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하연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구 (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 (II). *재활심리연구*, 3(1), 53-69.
- 정선진 (2006).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 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유진 (2011).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아동과 권리*, 15(1), 67-88.

- 최윤진, 임현정 (2010). '알과겉의 실제 및 진로 발달 특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2), 203-230.
- 한영경 (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Boston: Beacon Press.
- Baumrind, D. (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In J. Brooks-Gunn, R. Lerner, & A. Petersen (Eds.), *The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746-758). New York: Garland.
- Booth-Laforce, C., Rubin, K. H., Rose-Krasnor, L., & Burges, K. (2004). Attachment and friendship predictors of psychosocial functioning in middle childhood and the mediating roles of social support and self-worth. In K. Kerns & A. Richardson (Eds.), *Attachment in middle childhood* (pp.161-188). New York: Guilford Press.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2), 215-232.
- Browne, W. J.,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ntaine, R., & Costenbader, V. (1997). Self-reported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between girls and boys. *Sex Roles, 36*(9-10), 625-637.
-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Yeh, E. A. J., & Huddleston-Casas, C.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209-227.
- Clark, K. E., & Ladd, G. W. (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2), 337-347.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Eisenberg, N., & Fabes, R. A.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 N. Eisenberg

-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701-778). New York: Wiley.
- Espelage, D. L., Mebane, S. E., & Swearer, S. M. (2004). Gender differences in bullying: Moving beyond mean level differences. In Espelage, D. L. & Swearer, S. M. (Eds.), *Bullying in American schools: A social-ecological perspective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p. 15-35). Hillsdale, NJ: Erlbaum.
- Fabes, R. A., Martin, C. L., & Hanish, L. D. (2003). Young children's play qualities in same-, other-, and mixed-sex peer groups. *Child Development, 74*(3), 921-932.
- Finnegan, R. A., Hodges, E., & Perry, D. G. (1998). Victimization by pee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1076-1086.
- Fuhrman T., & Holmbeck G. N, (1995). A contextual-moderator analysis of emotional autonomy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3), 793-811.
- Ghaed, S. G., & Gallo, L. C. (2006). Distinctions among agency, communion, and unmitigated agency and communion according to the interpersonal circumplex, five-factor model, and social-emotion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6*(1), 77-88.
- Giesbrecht, G. F., Leadbeater, B. J., & MacDonald, S. W. S. (2011). Child and context characteristics in trajectories of physical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1), 239-252.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rave, K. (2007). Not always sugar and spice: Expanding theoretical and functional explanations for why females aggres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2), 131-140.
- Hanish, L. D., Eisenberg, N., Fabes, R. A., Spinard, T. L., Ryan, P., & Schmidt, S. (2004a). The expression and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s: Risk factors for young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2), 335-353.
- Hanish, D., Kochenderfer-Ladd, B., Fabes, A., Martin, L., & Denning, D. (2004b). Bullying among young children: The influence of peers and teachers. In D. L. Espelage, & S. M. Swearer (Eds.), *Bullying in American schools: A social-ecological perspective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p. 141-159). Mahwah, N.J.: L. Erlbaum Associates.
- Hankonen, N., Konttinen, H., & Absetz, P. (2013). Gender-related personality trait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How do they relate to women's waist circumference chang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10), 1291-1301.
- Helgeson, V. S., & Fritz, H. L. (1999). Unmitigated agency and unmitigated communion: Distinctions from agency and commun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2), 131-158.
- Helgeson, V. S., Swanson, J., Ra, O., Randall, H., & Zhao, Y. (2015). Links between unmitigated communion, interpersonal behaviors and well-being: A daily diary approac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 57(1), 53-60.
- Helwig, N. E., & Ruprecht, M. R. (2017). Age, gender, and self-esteem: A sociocultural look through a nonparametric lens. *Archives of Scientific Psychology*, 5(1), 19-3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sley, S. L., O'Neil, R., Clatfelter, D., & Parke, R. D. (1999). Parent and child expressed affect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odeling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Developmental Psychology*, 35(2), 547-560.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 D. C. (2001). Understanding women's anger: A description of relational pattern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2(4), 385-400.
- Kiesner, J., Cadinu, M., Poulin, F., & Bucci M. (2002). Group identification in early adolescence: Its relation with peer adjustment and its moderator effect on peer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3(1), 196-208.
- Kindlon, Dan (2007).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파 걸. (최정숙 역). 서울: 미래의 창. (원서 출판 2006).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공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5).
- Kornienko, O., Santos, C. E., Martin, C. L., & Granger. (2016). Peer influence on gender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2(10), 1578-1592.
- Kreiger, T. C. (2008). *When blue acts pink: Gender-related behaviors as predictors of peer acceptance and victim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Kuppens, S., Laurent, L., Heyvaert, M., & Onghena, P. (2013).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multilevel and sequenti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697-1712.
- LaFreniere, P. J., & Sroufe, L.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56-69.
- Leff, S. S., Waasdorp, T. E., & Crick, N. R. (2010). A review of existing relational aggression programs: Strength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School Psychology Review*, 39(4), 508-535.
- MacBrayer, E. K., Milich, R., & Hundley, M. (2003). Attributional biases in aggressive children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4), 698-708.
- Maner, J. K., DeWall, C. N., Baumeister, R. F., & Schaller, M. (2007). Does social exclusion motivate interpersonal reconnection? Resolving the 'porcupine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42-55.
- Mathieson, L., Murray-Close, D., Crick, N., Woods, K., Zimmer-Gembeck, M., Geiger, T., & Morales, J. (2011). Hostile intent attributions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moderating roles of emotional sensitivity, gender, and victimiz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4), 698-708.

- Child Psychology*, 39(7), 977-987.
- McDowell, D. J., & Parke, R. D. (2000). Differential knowledge of display rules for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fluences from parents, influences on peers. *Social Development*, 9(4), 415-432.
- Michiels, D., Grietens, H., Onghena, P., & Kuppens, S. (2008).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28(4), 522-540.
-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2), 312-332.
- Moretti, M. M., Catchpole, R., & Odgers, C. (2005). The darkside of girlhood: Recent Trends, Risk factors and Trajectories to aggression and violence. *The Canadi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Review*, 14(1), 21-25.
- Muris, P., Meesters, C., Morren, M., & Moorman, L. (2004). Anger and hostility in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7(3), 257-264.
- Navarro, R., Larrañaga, E., & Yubero, S. (2011). Bullying-victimization problems and aggressive tendencies in Spanish secondary schools students: The role of gender stereotypical trait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4(4), 457-473.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Rubin, & B. Asendorpf(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5-341). Hillsdale, NJ: L. Erlbaum Associates.
- Owens, L., Daly, A., & Slee, P. (2005). Sex and age differences in victimiz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among adolescents in a South Australian school. *Aggressive Behavior*, 31(1), 1-12.
- Paquette, J. A., & Underwood, M. K. (1999). Gender differences in young adolescents' experiences of peer victimization: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45(2), 242-266.
- Park, J., Essex, M. J., Zahn-Waxler, C., Armstrong, J. M., Klein, M. H., & Goldsmith, H. H. (2005).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Early child and family risk facto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6(2), 233-257.
- Perry, D. G., Hodges V. E., & Egan, S. K. (2001).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73-104). New York: Guilford Press.
- Pronk, R. E., & Zimmer-Gembeck, M. J. (2010). It's "Mean," but what does it mean to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on described by victims, aggressors, and their pee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5(2), 175-204.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338-349.

- Rigby, K. (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4), 501-513.
- Roberts, K. E., Hart, T. A., Coroiu, A., & Heimberg, R. G. (2011). Gender role Traits among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8), 952-957.
- Rohner, R. P. (1986). *The Warmth dimension: Foundation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olberg, M. E., & Olweus, D. (2003). Prevalence estimation of school bullying with the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Aggressive Behavior*, 29(3), 239-268.
- Spence, J. T., Helmreich, R. L., & Holahan, C. K. (1979). Negative and positive components of psychological masculinity and femininity and their relationships to self-reports of neurotic and acting out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673-1682.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research edition*. Tamp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torch, E. A., & Masia-Warner, C. (2004). The relationship of peer victimization to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in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Adolescence*, 27(3), 351-362.
- Sue, D. W., & Sue, D. (1999).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Suess, G. J., Grossmann, K. E., & Sroufe, L. A. (1992). Effects of infant attachment to mother and father on quality of adaptation in preschool: From dyadic to individual organization of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1), 43-65.
- Sugihara, Y., & Katsurada, E. (2002). Gender role development in Japanese culture: Diminishing gender role difference in a contemporary society. *Sex roles*, 47(9-10), 443-452.
- Tenenbaum, H. R., & Leaper, C. (2002). Are parents' gender schemas related to their children's gender-related cognitions?: A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8(4), 615-630.
- Yu, L., & Xie, D.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rable and undesirable gender role trai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in Chinese cult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7), 1517-1527.
- Zarbatany, L., Conley, R., & Pepper, S. (2004). Personality and gender differences in friendship needs and experiences in pre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4), 299-310.

1차원고접수 : 2017. 09. 15.

수정원고접수 : 2017. 12. 01.

최종게재결정 : 2017. 12. 05.

## The study of personal and familial variables of girl victims of relational victimization

Young-rim Kim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personal and familial variables related to relational victimization of girls and functioning mechanisms of these variables. For this,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was set as a familial variable, and trait anger and gender role traits were set as personal variables. Moreover, the mediating roles of trait anger, agency, unmitigated agency, communion, and unmitigated commun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and girls' relational victimization were examin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total of 815 elementary school girls in 5<sup>th</sup> and 6<sup>th</sup> grades sampled from fourteen element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all the mediating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unmitigated communion was the only mediator showing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at is,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made girls vulnerable to relational victimization by developing unmitigated communion.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for reducing girls' victimiza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were discussed.

*Key words* : relational aggression, girl victims,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unmitigated communion